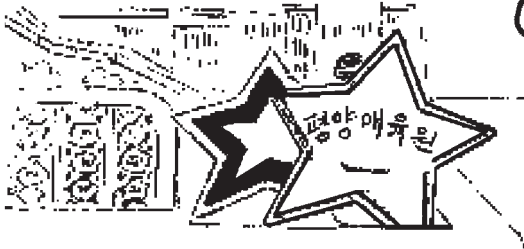




# 해님의 소원



리 혁 민

한해도 다 저문 선달그믐날 밤.  
벽시계의 작은바늘이 열시를 가리키고있  
었습니다.

이제 두시간후면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온 밤하늘에 울릴것입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새해의 첫아침에 하  
시게 될 신년사의 원고를 다시금 들여다보  
시였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  
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파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  
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부분은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숭고한 경의와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보  
내는 인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조  
용히 눈을 감으시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  
대시였습니다.

신년사의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부족한감  
을 느끼시었던것입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잠시 지나온 한해를  
더듬어보시였습니다.

제일먼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  
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넘던 힘준한 산발들  
과 위험했던 바다길들이 눈앞에 떠오르시었  
습니다.

뒤이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중

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완공하기 위해 밤낮을 잇으시고 지도하시던  
일이며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의 체육  
인들을 만나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때의  
일도 생각나시였습니다.

하많은 생각중에서도 가슴을 울렁이는 생  
각이 있었습니다.

원아들에 대한 생각이였습니다.

지난 2월 3일과 6월 1일 애육원을 찾으시  
여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친아버지의 정을 안  
겨주시고 대동강반에 새 육아원과 애육원을  
짓도록 조치를 취하던 일들이며 완공된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고나서 더없는 기쁨  
을 느끼던 10월 25일도 떠오르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난 한해는 원아들을 더 내세  
워주고싶어 원심을 써오신 한해이기도 하였  
습니다.

(지금 원아들은 무엇을 하고있을가? 아,  
그렇지, 지금이 어느때라고... 꿈나라에들  
가있겠군.)

아버지원수님의 존안에는 두번씩이나 뽀  
뽀를 해준 진성이와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  
아달라고 내밀던 철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  
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던 곱게 생긴 류  
송이도...

(가만, 류송이가 좋아졌을가? 하긴 수술  
결과가 좋다고 의사들이 그랬었지. 원아들  
이 다 건강해야 할텐데...)

원아들을 그려보시던 원수님께서서는 빙그

레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문득 그들과 하신 약속이 생각나시었던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모란봉에 있는 애육원을 찾아가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그들과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습니다.

《애들아, 내 너희들의 소원대로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집을 인차 지어주마. 좋지?》

《예.》

원아들이 기다린듯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때 류송이가 영두입을 방긋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원수님에게도 소원이 있나요?》

《소원? 소원이라... 아무렴, 있지. 그런데 내 소원은 너희들만이 풀어줄수 있단다. 그래 너희들 내 소원을 풀어줄수 있겠느냐?》

의혹이 가득 실린 눈을 깜빡이는 원아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이 무엇가?

우리가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을 어떻게 풀어드린담?

《원수님의 소원은 뭐나요?》

모두가 생각들만 하고있었지만 그래도 대담하게 물어보는것은 류송이였습니다.

《글쎄 말해줄수도 있지만 이제 말하면 너희들이 당장이라도 풀어줄걸. 허허, 이렇게 하자. 너희들의 소원대로 멋진 집이 생기면 내 집구경하러 꼭 가겠으니 그때 소원을 말해주마. 그럼 너희들은 내 소원을 꼭 풀어주어야 한다. 어떠냐?》

《좋습니다.》

그때 눈을 반짝이며 짜랑짜랑 대답하던 원아들을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영원히 잊을수가 없으시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의자에서 일어나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 빛나고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도 아이들의 눈빛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별...

원수님께서는 온 한해 정을 기울여 키워오신 그 원아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

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싶으시였습니다.

창문가에서 돌아서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원고를 수정해나가시였습니다.

×

바로 그 시각.

마치도 동화속의 궁전처럼 꾸러진 평양애육원은 고요한 밤을 불러 원아들을 잠재우고있었습니다.

다랑다랑 코를 골며 자는 아이, 애기염소처럼 새김질하듯 입을 오물거리는 아이, 꿈울 꾸며 히죽이 웃는 아이...

류송이는 곰인형을 옆에 끼고 잠을 자고있었습니다.

사내애들처럼 눈섭이 굵은 반면에 나긋하게 휘어진 버들가지처럼 감겨진 두눈우로 끈게 솟은 속눈섭, 빠알간 입술...

《류송아, 류송아.》

누군가가 깨우는 바람에 류송이는 눈을 슬며시 떴습니다.

어두운 속에서도 책임교양원선생님이라는것은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류송아, 나하고 복도로 나가자.》

(왜 그럴가?)

2층침대에서 내린 그는 책임교양원선생님을 따라섰습니다.

복도에는 원장선생님이 웬 낯선 사람과 함께 서있었습니다.

《류송아, 이리 오너라.》

원장선생님이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류송아, 이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예?!》

류송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나?)

류송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뻔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웃음을 짓고있는 둥그스름한 얼굴, 굵은 눈섭에 비해 가느스름한 두눈...

《류송아, 내가 아버지다. 어서 이리 오너라, 응?》

아버지가 두팔을 벌리고 부르자 류송이는 한걸음, 두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류송이는 두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리는것

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보고 생각해온 아버지였는지 몰랐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존에서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를 보며 류송이는 아버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을가? 아버지 어떻게 생겼을가?...

아니야, 나한테 아버지가 없어. 없으니까 내가 애육원에서 살겠지...

놀음을 놀 때에도 그는 늘 아버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애기를 가운데 놓고 진성이와 함께 아빠 엄마놀음을 놀 때 류송이는 아버지가 있는 놀이감애기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류송아, 어서 집으로 가자. 원장선생님한테랑 다 말했다. 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가서 명절을 쇠자꾸나, 좋지?》

고개를 끄덕이던 류송이는 갑자기 텐겁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싫어, 싫어요.》

《아니, 싫다니?! 류송아!》

아버지가 다가오며 그를 안으려 했지만 류송이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뒤걸음칩니다.

《싫어요. 전 여기에 있을래요.》

《보셨지요? 제 말이 틀림없지요?》

원장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무겁게 끄덕입니다.

《예, 전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싶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류송아, 그럼 내 갔다가 후에 다시 오마. 그뻐 가겠지?》

《안예요. 난... 난 안 갈래요. 난 여기가 좋아요.》

류송이는 이렇게 소리지르고싶었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하자고 모지름을 쓰다가 그만에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야, 꿈이었구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앉은 류송이는 밤하늘이 반짝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류송아, 너 안 자니?》

옆침대에 누워있던 진성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다가들며 물었습니다.

《저거- 너 우누나. 왜 우니? 누가 너 때리던?》

류송이는 말없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픈게구나. 너 요전에 병원에 갔던거, 그거 아파서 그러지? 내가 선생님한테 말 할래.》

진성이의 말대로 류송이는 한달전에 충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파서 우는게 아니야.》

류송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진성이도 고개를 기웃거리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인차 잠들어버린 진성이의 숨소리가 들려왔건만 류송이는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올가? 아니야, 이진 꿈이잖아. 그래도 꿈에서처럼 아버지가 진짜 오시면 어찌나? 아버지가 오지 말았으면...)

정작 그러보던 아버지가 꿈에서나마 찾아왔건만 류송이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지나 정말로 아버지가 온다면 그는 모든 것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좋은 집, 훌륭한 선생님들, 좋은 동무들과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성이랑 철혁이랑 함께 아버지원수님께서 애육원에 오시면 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가면 그 약속을 지킬수가 없었던것입니다.

류송이는 그래서 울었습니다.

×

다음날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찾아오시였습니다.

원아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 신년사를 마치자마자 그길로 찾아오셨던것입니다.

지능놀이실앞 2층홀에는 교양원선생님들과 원아들이 기쁨과 긴장이 한껏 어린채 서있었습니다.

아롱다롱 색동저고리를 입은 류송이는 꽃다발을 안고 서있었습니다.

평양육아원을 돌아보신 아버지원수님께서 애육원의 2층홀에 들어서시면 제일먼저 꽃다발을 드려야 할 그였습니다.

《류송아, 너 일없겠니?》

뒤에 섰던 책임교양원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일없습니다.》

《너 아침밥도 조금밖엔 못 먹었는데 그러다 흑시...》

책임교양원선생님의 말대로 류송이는 아버지 생각으로 아침밥을 설쳤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애와 바꾸지 않겠니?》

책임교양원선생님은 류송이가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도 드리고 노래와 춤을 보여드려야 하기때문에 걱정하고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전 일없습니다. 전 할수 있습니다.》

류송이의 가슴은 약절구질을 하듯 콩콩 뛰었습니다.

(난 할수 있어. 잘해볼테야.)

이때 조각상처럼 똑바로 서있던 진성이가 류송이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류송아, 너 어제밤에 꾸 꿈 생각하지? 맞지?》

《아니야.》

류송이는 웃으며 왼쪽눈을 찡긋해보였습니다.

마음이 좀 풀렸는지 진성이의 얼굴에서 웃음발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그때 육아원과 련결된 복도에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어 문이 활짝 열리며 아버지원수님께서 2층홀에 들어서시였습니다.

그뒤로 애육원원장선생님이랑 그리고 낮모를 간부선생님들이 들어섰지만 류송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시는 아버지원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했습니다.

꿈결에도 만나뵈옵고싶었던 아버지, 늘 달려가 안기고싶었던 자애로운 해님이시였습니다.

류송이는 활짝 웃으며 아버지원수님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행복의 궁전을 지어주신 아버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원수님께서 꽃다발을 받으시며 자기의 불을 다독여주시자 너무 좋아 어쩔줄 몰

라했습니다.

이어 진성이가 한결을 나서며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너희들 류송이, 진성이로구나. 그새 잘있었느냐?》

《예.》

류송이는 진성이보다 먼저 대답하고나서 아버지원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번에 만났을 때보다 펍 컸구나. 그때, 너희들은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야 한다. 그래야 몸이 튼튼해지고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있단다. 알겠지?》

《예.》

아버지원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지능놀이실로 들어가는 류송이의 기쁨은 하늘만큼 컸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원장선생님과 수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원아들이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씩씩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명절을 함께 쇠니 정말 하늘의 별을 따다준 심정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긍지가 생깁니다. 자, 애육원을 돌아봅시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원장선생님의 안내를 받으시며 제일먼저 지능놀이실로 향하시였습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거라.》

아버지원수님께서 류송이와 진성이를 앞세우시고 놀이실에 들어서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류송이에게 물으시였습니다.

《류송아, 너 수술한 다음에 더 아프지 않았냐?》

《하나두 안 아픕니다.》

《정말이냐?》

류송이는 자기때문에 걱정하고계시는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르며 웃음꽃을 방실 피웠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전 그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냐?》

《아버지원수님, 난... 우리가 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내 소원?…》

《예, 우린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라구 다 준비했습니다.》

반대편에 서있던 진성이도 이때다 하고 한마디 끼웁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하하, 너희들이 잊지 않았구나. 그럼 내 소원을 말해줄가?》

《아버지원수님, 우린 다 알아냈습니다.》

진성이의 빠기는 대답에 원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습니다.

《그래? 음, 옹쿠나.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볼가?》

류송이의 눈앞에는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가 하고 동무들과 옥신각신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

《진성아,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이 뭘가?》

이것은 새 보금자리에 이사온 첫날부터 류송이가 늘 해오던 생각이였습니다.

《그것두 모르니? 난 알아.》

류송이는 단마디로, 그것도 체격 대답하는 진성이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감권총을 가지고 《땅, 땅.》 입총을 쏘던 철혁이가 류송이와 진성이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성아, 뭐가?》

《음… 우리들이 좋은 집에서 잘 놀고 잘 크는거지 뭐.》

류송이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듣고보니 옳은 말 같았습니다.

가운데서 눈을 깜박이던 철혁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성아, 한가지 빼놨어.》

《으응?》

《잘 먹는거란 말이야. 먹지 않구 어떻게 잘 놀고 잘 크니? 맞지, 류송아?》

류송이는 철혁이에게도 고개를 끄덕여보였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진성이와 철혁이의 말을 다시 되새

겨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딱 알아맞추지 못한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모두 1층놀이장에 모이라는 지시에 따라 류송이는 동무들과 함께 줄을 맞춰 놀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등글게 지은 놀이장은 참 맘에 들었습니다. 어느 놀이장과는 달리 넓어서 뛰놀기도 좋고 피아노랑 타악기랑 있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좋았습니다.

벽체에는 달을 타고 만리경을 보는 토끼그림이랑,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마차그림이랑 그려져있습니다. 그 마차에 탄 아이들은 좋아라 손을 흔들고있었습니다.

류송이는 마차가운데에 타고있는 애가 꼭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입을 한껏 벌리고있었으니까요.

떠들썩거리던 놀이장이 차츰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선생님이 놀이장에 들어오시였습니다.

《동무들.》

《옳!》

원장선생님의 부름소리에 원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른밤만 자면 무슨 날이나요?》

그러자 동무들속에서 속살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류송이옆에 선 철혁이가 진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서른밤 자면 무슨 날이가?》

《네가 뭐 선생님이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물어보면서…》

《난 또 뭐 넌 다 아는가 했지? 선물타는 날 아니가?》

《체, 아무때나 선물타니? 모르문 가만있으라. 설날이다, 왜?》

《그렇구나.》

철혁이는 씩 웃으며 원장선생님을 향해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장선생님, 설날입니다.》

《예, 철혁어린이가 옳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달만 있으면 기다리고기다리던 설날이 찾아옵니다. 그럼 설날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가요?》

원장선생님의 물음이 끝나기 바쁘게 철혁이는 진성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 설날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

《홍, 안 대줄래. 너 또 칭찬받구파서 그러지?》

《안야, 알문 좀 대주려마.》

《싫어.》

진성이가 발짝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살 더 먹습니다.》

《예, 진성어린이가 말한것처럼 동무들의 나이가 7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또 있나?》

진성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뒤더수기를 굽었습니다.

《선생님, 설날엔 맛있는거 먹습니다.》

동무들이 와 웃었습니다. 역시 철혁이의 생각은 먹는것과 편결되어있었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웃음을 짓던 류송이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류송이, 대답해봐요.》

《원장선생님, 설날에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애육원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옳습니다. 류송어린이가 말한것처럼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애육원이 완공되면 설날에 꼭 오시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은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새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랑, 매일 물고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랑 어김없이 지키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설날에도 애육원에 꼭 나오실것입니다.

《히야!》

동무들속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난 왜 류송이처럼 생각 못했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워야 할가요?》

《아닙니다.》

《그럼 우린 뭘할가요? 아버지원수님께서 설날에 찾아오시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가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난 춤을 추겠습니다.》

동무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원장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요. 우린 설맞이공연을 준비해서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해요.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시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류송이는 두눈을 반짝 떴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노래와 춤!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을 찾았다!)

...

《그렇게 찾았던 말이지, 음-》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류송이를 꼭 안아주시며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였습니다.

이런 원아들, 아버지의 소원을 알기 위해 애쓴 기특한 자식들을 찾아 여기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시였습니다.

어제저녁,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어디에 갈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신 아버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신년사도 그러했지만 현지지도로 정해진 곳은 그해에 중요하게 힘을 넣어야 할 부문으로 되고있기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곳은 많으시였습니다.

인민군대도 그렇고 국방공업부문도 같았습니다. 과학기술부문과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할 인민생활 부문, 건설부문...

그러나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가고싶으시였습니다. 신년사를 수정하시면서 다시금 결심을 굳히시였습니다.

원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싶으시였으며 자신의 소원도 이루고싶으시였습니다.

류송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수님, 우리들이 춤을 추고 노래부르는것이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이 맞나요?》

《으음? 그럼, 맞지 않구. 자, 너희들의 집을 다 돌아보고 류송이랑 진성이랑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꾸나.》

《야, 좋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두발을 동동 구르며

박수를 치는 그들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었습니다.

×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지능놀이실을 돌아보신 데 이어 잠자는 방에도 들리시었습니다.

《잠자는 방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2층침대도 아담하게 잘 구비하고 벽체와 천정처리도 동화그림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원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처음에 여기에 이사왔을 때 저저마다 2층침대에 올라가겠다고 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원장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자그마한 그림들이 붙어있는 침대를 살펴보시고 이불이랑 베개랑 둘러보시었습니다.

2층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수를 세어보시던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문득 류송이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습니다.

《류송아, 어디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봐라. 그리고 진성이랑 너희들도 모두 침대에 올라가봐라. 난 너희들이 자는 모습도 보고 싶구나.》

아버지원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자 원아들은 재빨리 흠뻑 빠져 다람쥐들처럼 2층침대로 뚝뚝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모두 앉아 아버지원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라.》

원아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자리에 누워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기를 1~2초...

원아들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아버지원수님쪽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류송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시어 물으시었습니다.

《류송아, 잠이 잘 오느냐?》

《예, 전 늑자마자 잡니다.》

눈은 감았어도 또렷하게 대답하는 류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그 옆에 누운 진성이에게 물으시었습니다.

《진성인?》

《아버지원수님, 늑자마자 자는건 접니다. 류송인 누우면 잠들었다가도 어떤 땐 깨나서 울기도 합니다.》

진성의 말에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진성은 원장선생님이 몰래 하는 눈짓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난 울음소리에 깨났습니다. 보니까 류송이가 앉아서 영영 울고있었습니다. 꿈을 꿨답니다. 맞지, 류송아? 너 어제 밤에 꿈을 꾸고 울지 않았?》

류송이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단 말만 터지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진성이입니다. 아버지원수님께 드리는 말을 막을수도 없고 그냥그냥 말하는 진성이가 참 미웠습니다.

(이걸 어쩌나? 아버지원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지 않아? 저 앤 말하는 정신에 모르는가봐.)

《류송아, 너 어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아버지원수님께서 물으시자 류송이는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없다. 어서 내게 다 말해라.》

《어제...밤에 우리... 아버지가 찾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더더욱 놀라시며 류송이의 다음말을 기다리시었습니다.

류송이는 침대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꿈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음- 그러니 나를 만나고싶어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지. 내 소원을 풀어주자고...》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더욱더 창문가를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시었습니다.

저 어린게 얼마나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으면 꿈에 아버지를 보았으랴...

그래도 그렇게도 그리던 아버지를 꿈속에서나마 만났는데 가겠다고 할것이지...

《류송아, 아버지가 보고싶냐?》

류송이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전 아버지원수님이 좋습니다. 전... 전 아버지가 진짜 와도 애육원에서 안 가겠습니다. 흑-》

류송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

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그러는 류송이를 다정히 안아주시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눈곱이 뜨거워나시었습니다.

결에서 눈가에 손을 가져가는 원장선생님을 보시며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젠 이 애들도 나와 정이 깊어진것 같습니다. 나도 때때로 이 애들 생각에 잠이다 안 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싶었으면... 원장선생, 내 이 애들을 봐서라도 애육원에 자주 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원장선생님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곱을 적시고야말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눈물이 그렇게있는 아이들을 보시고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날인데 모두 웃어야지. 참, 류송아, 진성아, 너희들 오늘 내 소원을 풀어준다고 했지?》

《예!》

원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싶게 작은 얼굴들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애들이 참 당돌합니다. 전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푹푹해지고 밝아졌습니다. 자, 그럼 어디 너희들이 춤추고 노래하는걸 좀 볼가?》

애육원은 금시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의 환하신 미소와 원아들의 기쁨으로 짝 차넘쳤습니다.

x

1층놀이장에서 설맞이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아들의 설맞이공연,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진행하게 되는 첫 설맞이공연이었습니다.

서장 《우리 자랑 노래불러요》로 시작된 설맞이공연에는 원아들의 행복과 기쁨을 담

은 무용과 노래들이 올랐습니다.

류송이가 독창 《우리 나라 제일이야》를 부르고났을 때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방글방글 웃으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한달전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로부터 류송이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으시던 때의 일을 생각하시었습니다.

...

설맞이공연을 위한 연습이 시작되어 이들이 된 어느날 저녁.

동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이방에 들어간 류송이는 진성이가 하는 행동이 우스워 키드득 웃었습니다.

창문가에 서서 턱을 잔뜩 울리고 《마이-마이-마이-마이-》 이러는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예술영화 《노래속에 꽃피는 가정》을 보고 저러는것 같았습니다.

우스운것은 제대로 시늉내면 또 모르겠는데 잔뜩 목이 쉬여가지고 하니 염소가 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연습 첫날부터 기사니 처럼 껹꾹 소리만 지르다나니 목구멍이 덜컥 고장이 났던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아버지원수님이시다!》

《어디어디?》

우유사랑을 쓴 비닐을 벗기느라 신경을 쓰던 철혁이가 눈을 크게 뜨고 출입문쪽으로 두리번거리자 류송이는 액정텔레비존을 가리키며 따끔 침을 놓았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텔레비에서지.》

《야, 정말! 아버지원수님!》

철혁이가 소리치자 류송이가 두눈을 부릅뜬다.

《야- 좀 조용하라마.》

《응, 조용할게.》

철혁이는 노상 류송이한테 집니다. 쌍까 풀지고 속눈썹이 긴 두눈에 약간만 힘을 주어도 철혁이의 눈길은 아래로 떨어지곤 하였었습니다.

류송이는 바람이 뽕뽕 부는 추운 겨울날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르며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진성이는 구연과 노래 《내가 만든 눈사



람》을 준비하느라 목이 다 쉬었는데도 어떻게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보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류송이는 입술을 감빰며 발뽀발뽀 놀이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1층놀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동무들이랑 선생님들이 듣지 못하게 문까지 꼭꼭 닫았습니다.

자기 몸에 꼭 맞게 만든 의자에 앉자 조용 조용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러본 그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래배가 띵띵 아파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전부터 약간씩 아팠었는데 그때마다 참으면 인차 없어지군 하여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차 사라지지 않고 아픔은 더해만 갔습니다.

《아이고 배야.》

류송이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때없이 오던 아픔은 전혀 멎을줄 모르고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 선생님, 진성아-》

류송이는 문가를 향해 기여가다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그날 류송이가 없어진것을 보고 책임교양원선생님이 제각 모든 방들을 발각 뒤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날번 했습니다.



류송이는 책임교양원선생님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면서도 안 가겠다고 떼질 썼습니다. 병원에 가면 노래를 못 부른다고, 자기는 꼭 노래를 불러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그때 전국의 원아들 속에서 류송이와 같은 비상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세우도록 해당 책임일군에게 과업을 주시던것도 생각나시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단 한점의 그늘이 지게 하고싶지 않으시었던것입니다.

설맞이공연은 절정을 이루고있었습니다.

5중창과 민속놀이 《줄넘기》가 끝나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물이 울려나왔습니다.

원아들과 교양원선생님들이 만세를 부르며 무대에 달려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류송이는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내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고아들이 차고넘쳐 길바닥에서 자며 빌어먹고 산다고 한 교양원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류송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덮고자는 폭신한 이불, 자기가 사는 희한한 집, 어머니를 대신해서 맛있는것도 해주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라새로운것을 배워주는 애육원...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때없이 찾아와 잘 먹고 잘 커서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줄 때마다 류송이는 더 바랄것이 없었습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꼭 자기의 마음을 알고 지은 노래같았습니다.

류송이는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렸습니다.

아버지도 못 준 사랑과 은정을 날마다 받아안았던 지나간 나날들이 떠오르면서 그는 끝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뿌예졌습니다.

아버지원수님앞에서 울지 말자고 몇번이고 다짐했었지만 그래도 눈물은 절로 나왔습니다.

류송이는 1절이 끝나자 동무들과 함께 웨쳤습니다.

《우리들이 정을 그리워한다고 명절날에도 찾아오시고 추운 겨울날에도 오시여 사랑을 안겨주신 원수님, 궁전같은 애육원을 지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몸을 흔들며 격정에 넘쳐 노래했습니다.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뼉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편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

류송이는 분명 보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의 눈가에 구슬같은것이 고여 반짝이는것을...

《아버지원수님!》

설맞이 공연을 끝내자마자 원아들은 아버지원수님을 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래그래,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다. 어디 안아보자, 내 자식들아.》

《아버지!》

자신의 주위로 옥 몰려드는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시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며 자신의 품에 파고드는 원아들을 꼭 껴안으시었습니다.

정말 떼여놓고는 못살 살불이, 헤어지면 안될 귀한 아들딸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또 이 애들을 품에 안아볼수 있을까...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류송이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것이 기특하게도 자

기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청하는것이였습니다.

방글방글 웃는 그를 보며 아버지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원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히 남을것이였습니다. 귀여운 류송이랑 진성이, 원아들모두의 웃는 모습들을 력사에 남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그래, 사진을 찍자. 나도 너희들과 떨어지면 보고싶었는데 서로 보고싶을 때마다 볼수 있게 사진을 찍자.》

《야!》

원아들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다음순간 서로마다 아버지원수님의 곁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자리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류송이는 아버지원수님곁에서 사진을 찍고싶었습니다. 동무들도 다같은 생각인지 저저마다 원수님의 팔에 매달려 떨어지지않았습니다.

이때 원장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 동무들.》

《예.》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겠습니까. 모두 곱게 앉아서 사진을 찍읍시다. 자, 곱게 앉으세요. 누가 곱나 봅시다.》

그제서야 동무들이 자리를 정돈하며 앉았습니다.

류송이는 아버지원수님곁에 자리를 잡고섰습니다.

《자, 우리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자. 류송아, 진성아, 눈물을 닦고 활짝 웃어라. 너희들이 내 소원을 풀어주겠다고 춤을 추고 노래했지. 그래, 너희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춤을 추고 노래부르는것도 내 소원이지만 그보다도 더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항상 밝게 웃으며 자라는거란다. 그러니 우리모두 웃자. 애육원이 환해지게, 세상이 밝아지게 웃자꾸나.》

류송이는 웃었습니다.

웃으며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의 소원, 해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제부터 계속 웃으리라 마음다졌습

니다. 아버지원수님의 소원을 계속계속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성이도 철혁이도 모두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부신 해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기별들처럼 그들은 맘껏 웃었습니다.

류송이는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르며 맘속으로 이렇게 웨쳤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우리들의 소원도 아버지원수님께서 웃으시는것입니다.》

《찰칵.》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가족사진이였습니다.

위대한 해님의 눈부신 빛발아래 아름다운 웃음꽃으로 장식된 대화원이였습니다.

×

《원장동무, 동무에게 저 애들을 부탁합니다. 동무들은 교육자이기 전에 친어머니들이 되어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항상 밝게 웃으며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애육원마당에 나서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다시금 당부하시였습니다.

《내 그래서 올해신년사의 첫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는 구절을 넣었던것입니다. 우리 온

한해 아니, 영원히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뛰고 또 뛰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이 꼭 명심하겠습니다.》

원장선생님은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르며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 마음놓고 가겠습니다. 참, 전기식소형유희렬차를 빨리 설치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렬차놀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설치되면 원아들이 거기에 계속 붙어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한가지한가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곤 합니다. 오늘 양력설을 잘 쇠였습니다. 대단히 만족합니다.》

원장선생님은 뜨거운 걱정을 가까스로 누르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렇듯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라...

설날날씨는 추웠지만 해님의 사랑으로 가슴은 마냥 후더워지기만 하였습니다.

원장선생님은 밝은 해님 찬란히 빛나는 푸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원아들보다 더 행복한 어린이들이 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

밝은 미래! 이 땅의 미래는 정녕 해님의 소원으로 밝고 창창한것이 아닌가?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세월... 맘껏 웃어라, 복받은 미래들아!)